

본문 비평 없이 성서 해석이 가능한가?

-민수기 22:5a의 본문 비평과 본문 해석-

왕대일*

해석학의 기초는 본문 비평이다. 본문 비평은 파손된 원문을 재구성하거나 본문을 확정하거나 번역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작업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본문 비평 없는 성서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¹⁾ 한 본문에 대한 본문 비평은 그와 평행하거나 상반되는 본문에 대한 관찰로 이어진다. 본문과 본문 사이에 이루어지는 본문 상호 간(Intertextual) 관찰은 각각의 본문에 반영된 양식과 전통과 구성에 대한 평가와 해석으로 나아간다. 본문과 본문에 반영된 증언에 대한 탐구는 본문을 확정하고 그것을 경전으로 읽는 신앙 공동체의 해석(미드라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성서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는 작업의 모든 들머리에는 사본, 역본, 본문을 들여다보는 과제가 선행한다. 본문 비평은 본문 해석의 길잡이다.

“그 때에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브돌에

* 감신대 교수, 구약학

- 1) ‘본문 비평 없는 해석이란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본문 비평 없는 번역이 가능한가”라는 민영진 교수의 질문에서 따온 것이다. 구약학자로, 성서 번역자로 성서 번역 현장을 섬겨왔던 민영진 교수는 본문 번역, 본문 해석, 본문 비평과 관련된 많은 저서를 후학들에게 남겼다. 그 가운데서도 본문 비평과 관련된 그의 대표적인 저서를 꼽으라면 단연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서울: 두란노, 1996)와 그의 초기 저작에 속하는 『국역성서연구』(서울: 성광문화사, 1984)이다. 본문 비평과 성서 번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15-130에 잘 정리되어 있다.

있었다”(민 22:5a, 표준). 이 구절은 발람 이야기(민 22:2-24:25)의 서두에 있는 말로 발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하는 문구이다. 구약 성서에서 발람은 둘로 엇갈린 이미지를 지닌다.²⁾ 한편에서는 야웨 하나님께 쓰임 받은 선지자로 부각되지만(민 22:2-24:25; 미 6:5),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반(反) 야웨 신앙의 함정에 빠트린 이방인 점술사로 묘사된다(민 31:8, 16; 신 23:3-6; 수 13:22; 24:9-10; 참조, 벤후 2:15; 계 2:14). 발람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구약본문 안에 병존하고 있다.³⁾ 이런 맥락에서 민수기 22:5a는 발람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구절은 짝막하다. 그러나 그 글말이 자아내는 본문 비평과 본문 해석은 짝막하지 않다. 민수기 22:5에 관한 본문상의 증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발람 이

2) B. A. Levine, *Numbers 21-3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4A (New York: Doubleday, 2000), 137-275; K. D. Sakenfeld, *Journeying with God: A Commentary on the Book of Numbers*, ITC (Grand Rapids: Eerdmans, 1995), 129-130; T. R. Ashley, *The Book of Number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3), 432-440; J. Milgrom, *Number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Philadelphia/New York: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469-471; G. W. Coats, “Balaam: Sinner or Saint?,” *Saga, Legend, Tale, Novella, Fable: Narrative Forms in Old Testament Literature*, JSOTSup 35 (Sheffield: Univ. of Sheffield, 1985), 56-62; 비교, W. C. Kaiser, Jr., “Balaam Son of Beor in Light of Deir 'Alla and Scripture: Saint or Soothsayer?,” J. E. Coleson and V. H. Matthews, eds.,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Studies in Honor of Dwight S. Young* (Wino Lake: Eisenbrauns, 1996), 95-106; Michael S. Moore, *The Balaam Traditions: Their Character and Development*, SBLDS 113 (Atlanta: Scholars Press, 1992), 66-96.

3) J. Lapsley, ““Am I Able to Say Just Anything?”: Learning Faithful Exegesis From Balaam,” *Interpretation* 60/1 (2006), 22-31; Levine, *Numbers 21-36*, 159; H. Lutzky, “Ambivalence Toward Balaam,” *VT* 49/3 (1999), 421-425; M. L. Barré, “The Portrait of Balaam in Numbers 22-24,” *Interpretation* 51/3 (1997), 254-266. D. T. Olson, *Numbers*, IBC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143-144.

야기의 텍스트를 확정해야 하는 과제와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해석해야 하는 본문 비평의 과제가 놓여 있다.

1. 민수기 22:5a의 본문, MT와 LXX와 벌게이트

발람이 누구인가?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고용하려고 했던 점술사이다. 40년 광야 유랑을 끝내고 모압까지 진출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발락이 불러온 인물이다. 구약에서 발람은 ‘누구의 자식’(בן)이라는 이름씨와 함께 소개된다. 거기에 발람의 출신지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진다. 발람은 브올의 아들이다(민 22:5; 24:3, 15; 31:8; 신 3:4; 수 13:22; 24:9; 미 6:5).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발람의 출신지에 대한 설명은 사정이 다르다. LXX가 민수기 22:5a(MT)를 “그가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로, 그의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의 강가 브돌로(Φαθουρα ὃ ἐστὶν ἐπὶ τοῦ ποταμοῦ γῆς υἱῶν λαοῦ αὐτοῦ) 사신을 보냈다...”로 옮긴 이래 많은 번역본들은 발람을 강가 브돌에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⁴⁾ 그러나 벌게이트는 그렇지 않다. 민수기 22:5a를 읽어보자.

MT.....וַיִּשְׁלַח בְּנֵי-עַמּוּנָה אֲרָז בְּנֵי-עַמּוּנָה אֲשֶׁר עַל-הַנְּהַר אֲרָז בְּנֵי-עַמּוּנָה

LXX καὶ ἀπέστειλεν πρέσβεις πρὸς Βαλααμ υἱὸν Βεωρ Φαθουρα ὃ ἐστὶν ἐπὶ τοῦ ποταμοῦ γῆς υἱῶν λαοῦ αὐτοῦ.....

Vulgate misit ergo nuntios ad Balaam filium Beor ariolum qui

4) 이에 비해 민수기 23:7은 발람의 고향을 “아람”(אֲרָם 아람 나하라임)으로 소개한다(참조, 신 23:4).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민수기 22:5는 발람이 살던 곳을 브돌이라고 소개한다.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이 브돌을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있던 피트루(Pitru)로 단정한다면, 이 피트루가 주전 9세기 당시 아람 사람의 수중에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A. Malamat, “The Arameans,” D. J. Wiseman, ed., *Peoples of Old Testament Times* (Oxford: Clarendon Press, 1973), 134-155; Milgrom, *Numbers*, 186.

habitat super flumen terrae filiorum Ammon.....

KJV He sent messengers therefore unto Balaam the son of Beor to Pethor, which is by the river of the land of the children of his people....

NIV He sent messengers to summon Balaam son of Beor, who was at Pethor, near the River, in his native land.....

『개역개정』 그가 사신을 브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 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표준』 그는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브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 때에 발람은 큰 강 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브돌에 있었다...

민수기 22:5a는 번역본들을 따라서 MT의 에레츠 브네 암모(ארץ בני-עמו)를 “고향”으로 옮기기도 하고(NIV, 개역개정),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으로 옮기기도 한다(LXX, KJV, 표준). 이같은 차이는 본문상의 이독(異讀)이라기보다는 표현상의 차이에 가깝다. 문제는 이 구절을 벌게이트(terrae filiorum Ammon)가 LXX와는 달리 여러 히브리어 사본과 사마리아 오경(SP)과 시리아역(S)을 따라 MT의 에레츠 브네 암모를 에레츠 브네 암몬(ארץ בני עמון, 암몬 자손의 땅)으로 고쳐 읽는다는 데 있다. 발락이 자기 사신을 브올이 살고 있는 암몬 자손의 땅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MT의 나할(נהל)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우리말 『표준』은 이 단어를 “큰 강”으로 옮기면서 난외주에 그것을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밝혀놓았다. 이 점은 NIV도 마찬가지이다. 구약에서 나할이라고 쓰면 보통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이다(창 31:21; 출 23:31; 수 24:2-3, 14-15).⁵⁾ 때론 아람 나하라임[ארם נהרים, 두 강의 아람, 신

5) 예외적으로 이사야 19:5-6에서 강(נהל)은 나일 강을 가리킨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נהל)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נהרות)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

23:4(23:5 H)]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수기 22:5(MT)는 이런 범례를 따르지 않는다. 나할이라는 단어 뒤에 굳이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אֶרֶץ בְּנֵי-עַמּוֹ)이라는 구절을 첨가시켜 놓았다. 하지만 발람이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에 산다고 소개하는 방식은 한 개인의 출신지를 밝히는 형식치고는 특이하다. 히브리어에서는 ‘...의 자손들’(בְּנֵי)이라는 구문(연계형) 뒤에 으레 특정 개인/부족/민족의 이름씨를 붙이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MT의 에레츠 브네 암모를 에레츠 브네 암몬으로, 곧 암몬 자손들이 사는 땅으로 고쳐서 읽는 별개이트의 본문 수정은 설득력을 지닌다. 구절의 맨 끝에 있어야 할 히브리어 철자 민(ן)을 서기관이 실수로 빠트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제안에 따라서 민수기 22:5a의 강(גַּרְגַּר)을 암몬 자손이 사는 땅에 있는 강으로 본다면, 그 강은 과연 어느 강일까?⁶⁾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브돌(בְּדוּל)도 되짚어 보아야 한다. LXX(Faqoura)는 이 낱말을 지명으로 간주하였다. 히브리어의 맨 끝에 있는 철자(ה)를 방향을 가리키는 지시어(ה directive)로 본 것이다. 그랬기에 발람이 사신을 브돌로, 곧 “발람의 백성들의 땅에 있는 강가”(ἐπιτοῦ ποταμοῦ γῆς υἰῶν λαοῦ αὐτοῦ)로 보냈다고 해석하였다. 이런 번역은 브돌(히브리어로는 페토라)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피트루(Pitru)-앗시리아의 살마네셀 2세(Shalmaneser II, 주전 860-825년)가 세운 비문에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있는 도성(ἰ)라는

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 6) Barré, “The Portrait of Balaam in Numbers 22-24,” 255; S. C. Layton, “Whence Comes Balaam? Num 22:5 Revisited,” *Biblica* 73 (1992), 32-61.
- 7) 살마네셀 비문은 다음과 같다. “당시 나는 그들의 이전 상태인 아나-아수르-아티르-아스밧(Ana-ašur-ufir-ašbat)까지 회복하였는데, 그 곳은 핫티(히타이트) 사람들이 피트루(Pitru)라고 부르던 곳이다. 이 곳은 유프라테스의 북단에 있는 사구라(Sagura)에 있다.” Gray, *Numbers*, 325-326.

인식이 깔려 있다.⁸⁾ 그러나 과연 MT의 페토라를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할까? 브돌을 지명으로 읽는다면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살던 발람이 모압으로 올 때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과 함께 왔다는 기사에 주목해야 한다(민 22:21, 22-35).

MT의 페토라 아세르 알 한나알(פֶּטוֹרָה אֲשֶׁר עַל-הַנָּהָר)을 우리말 번역(개역)처럼 강가에 있는 브돌로 읽는다면, 히브리어 페토라를 피트루라고 본다면, 민수기 22장에서 발람이 치룬 여행은 상당히 먼 거리가 된다. 유프라테스 강 북부 피트루에서 모압에 이르는 거리는 실제로 640km에 달한다. 이렇게 먼 거리를 간단하게 나귀를 타고 여행할 수 있었을까? 나귀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되던 짐승이다(참조, 창 22:3-4). 먼 길은 낙타를 타고 다니는 것이 보통이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부터 모압에 이르는 길은 아무리 빨라도 20일이 넘게 걸리는 길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고자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갈 때 낙타를 타고 가지 않았던가(창 24:10).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MT의 브네 암모를 브네 암몬으로, MT의 나할을 암몬 자손의 땅에 있는 강으로, 브돌을 암몬 자손의 땅에 있는 어떤 장소로 읽는다면, 민수기 22:5a에서 발람은 트랜스요르단(Transjordan) 지방 사람이 되고, 브돌은 트랜스요르단 지역에 있는 강(요르단 강이나 압복 강)변에 있던 도성이 된다.⁹⁾

하지만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브돌을 굳이 고장을 지칭하는

8) Layton, "Whence Comes Balaam?," 37; Ashley, *The Book of Numbers*, 445; Milgrom, *Numbers*, 186. 비교, 신명기 23:4(23:5 H)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발람을 "아람 나하라임(메소포타미아)의 브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고 지적한다. 발람의 고향에 대한 신명기 23:4의 지적은 민수기 22:5보다도 후대의 전승으로 비쳐진다.

9) Jo A. Hackett, "Balaam," *ABD*, I (New York: Doubleday, 1992), 560-572, 특히 571; Gray, *Numbers*, 326-327.

명칭으로 보아야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MT에서 발람 뒤에 첨가되어 나오는 설명인 페토라(פֶּתוּרָה בְּרִבְעוֹר בְּלָעַם)는 발람의 사회적 역할을 지시하는 호칭으로도 읽힐 수 있다. 별게이트는 시리아역(pšur')과 함께 MT의 페토라를 점술가(ariolum)로 옮기고 있다. 유대 미드라쉬도 브돌을 히브리어 철자(ר-ת-פ)에서 유래한 꿈을 해몽하는 사람으로 해석하였다.¹⁰⁾ 즉, MT의 페토라는 점술가나 꿈을 해몽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아람어 호칭으로 볼 수 있다. 히브리어 페토라의 마지막 철자(ת)를 방향을 지시하는 문법적 형태로 보기보다는 페토라를 하나의 단어로 읽는 것이다. 여호수아 13:22에서 발람이 “브올의 아들 점술가”(בְּרִבְעוֹר הַקּוֹסִים)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나 포테르/포르타(פֶּתוּרָה/פֶּתוּרָה)가 요셉 이야기에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창 40:8; 41:13)을 가리키는 전문 호칭으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이런 추정에 도움을 준다.

2. 민수기 22:5a와 신명기 23:4, 발람 전승의 재평가

민수기 22:5a의 알 한나알 에레츠 브네 암모(그의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에 흐르는 강가)를 알 한나알 에레츠 브네 암몬(암손 자손의 땅에 흐르는 강가)으로 고쳐 읽는다면 민수기 22:5a의 해석은 원활하게 된다. 브돌에서 모압까지 오는 여행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본문 수정은 민 22:5a가 평행하는 다른 증언[민 23:7; 신 23:4(23:5 H)]과 상응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민 23:7(MT) וַיִּשָּׂא מִשְׁלוֹ וַיֹּאמֶר מִן־אֲרָם יִנְחֵנִי כִּלְקַ מִלְּד־מוֹאָב מִהַר־רִיבְיָאֵם

10) Targ. Jon., et al., eds., *The Brooklyn Museum Aramaic Papyri* 18.2; Milgrom, *Numbers*, 186에서 재인용.

민 23:7(LXX) ἐκ Μεσοποταμίας μετεπέμψατό με Βαλακ βασιλεὺς Μωαβ

민 23:7(개역개정)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

민 23:7(표준)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신 23:5(MT) וַיִּשְׁכַּר שָׂכָר עֲרִיב אֶת-בְּלֶעָם בֶּן-בְּעוֹר מִפְּסוּר אֲרַמְנֵהָרִים לְלֵלָהּ

신 23:5(LXX) τὸν Βαλααμ υἱὸν Βεωρ ἐκ τῆς Μεσοποταμίας καταράσασθαί σε

신 23:4(표준)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브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2:5a는 민수기 23:7과 신명기 23:4[23:5 (H)]와 병행한다. 민수기 23:7의 경우 우리말 번역은 MT를 충실히 따른다. 『개역개정』은 MT를 따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아람에서”(מִן-אַרָם) 데려왔다고 증언한다. 『표준』은 이 단어를 “시리아에서”로 옮기면서 난외주에 “또는 ‘메소포타미아’에서”라고 표기해 놓았다. 구약에서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이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의 북서쪽 지방과 겹친다. 민수기 23:7의 아람은 호세아 12:12[12:13 (H)]의 “아람의 들”(표준에서는 “메소포타미아 평야”) MT에서는 אֲרָם פְּדָה이나 밧단아람 אֲרָם פְּדָה 창 28:2의 짧은 표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민수기 23:7의 LXX(ἐκ Μεσοποταμίας)는 이 구절을 “메소포타미아에서”로 옮기고 있다.

헬라이어 메소포타미아(Μεσοποταμία)는 성경에서 모두 18번 사용되는데 그 가운데 14번은 오경의 창세기에 나온다. 히브리어 아람(אֲרָם)을 헬라이어 메소포타미아로 풀이한 것은 아주 독특한 경우로 여기에서만 발견된다.¹¹⁾ BHS의 비평적 각주(Critical Apparatus)는 민수기 23:7의 아람을 에돔(אֲדָם)으로 수정해서 읽을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MT의 아람(אֲרָם)을 문자 그대로 아람으로 읽는 것이 정당하다. 주전 10-9세기에는 이집트 경계로부터 트랜스요르단 지역을 경유하여 사막 지역을 거쳐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고장이 모두 아람으로 불렸다.¹²⁾ 즉, 모압 왕 발람이 발람을 아람에서 데려왔다는 민수기 23:7의 소개는 민수기 22:5의 본문 이해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문제는 신명기 23:4[23:5(H)]의 아람나하라임(אֲרָם נַחְרַיִם)에 있다. 아람나하라임(두 강의 아람)은 분명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일컫는다. 발람의 고향을 확실하게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못박고 있는 것이다. LXX(ἐκ τῆς Μεσοποταμίας, 신 23:5)도 MT를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 즉 발람이 살던 브돌을 트랜스요르단 지역(암몬 자손의 땅)으로 추정하려는 민수기 22:5a의 해석은 신명기 23:4의 증언과 충돌하게 된다. 이런 본문상의 긴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긴장은 신명기 23:4를 민수기 22:5보다는 후대에 비롯된 전승이라고 이해할 때 해소될 수 있다.¹³⁾ 왜 그럴까?

11) J. W. Wevers, *LXX: Notes on the Greek Text of Numbers* (Atlanta: Scholars Press, 1998), 388. 창세기에서는 히브리어 밧단(בְּטָן)이나 밧단 아람(אֲרָם בְּטָן), 아람나하라임(אֲרָם נַחְרַיִם)이 Μεσοποταμία로 번역된다.

12) 타르굼 옹켈로스(Targum Onkelos)는 피트루를 아람 지역으로 부른다. 이집트의 문헌은 이집트 경계에서부터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지역을 모두 아람으로 지칭하고 있다(비교, 민 23:7).

13) D. Frankel, "The Deuteronomic Portrayal of Balaam," *VT* 46/1 (1996), 30-42; Barré, "The Portrait of Balaam in Numbers 22-24," 265, n. 5.

구약성서에 개진된 발람 전승은 민수기 22-24장의 발람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민수기의 발람 이야기(민 22:2-24:25)는 발람을 선견자로, 아웨 신앙의 선지자로 적극 묘사하고 있다. 즉 “아웨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셨다”(עַל־פִּי־בְלָאָם־וַיִּדְבַּר־וַיִּתֵּן־לּוֹ־מִקְדָּשׁ)고 증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민 23:5, 참조, 23:12). 하지만 이런 투의 설명은 신명기에서 더는 수용되지 않는다. 신명기 이전에 있었던 발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신명기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비판으로 바뀐다. 이런 흐름은 민수기에 보존되어 있는 발람에 대한 또 다른 전승(P)에서도 발견된다(민 31:8). 거기에서 발람은 타도되어야 할 이방인 점술사에 지나지 않는다.¹⁴⁾

발람 전승을 이야기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민수기 텍스트(민 22:2-24:25)는 발람 전승을 주제나 모티브로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본문들(신 23:4-5; 수 24:9-10; 민 31:8; 미 6:3-5; 느 13:2)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작품이다. 물론 발람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는 신명기의 신학적 판단이나 제사장 전승은 독자적으로 유포된 전승으로 간주될 수 있다.¹⁵⁾ 발람과 관련된 주요 용어가 민수기의 발람 이야기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점 등이 그런 견해를 지지하게 만든다.¹⁶⁾

14) Rofé, *The Book of Balaam*, 46-48; M. Weinfeld, *Deuteronomy 1-11* (New York: Doubleday, 1991), 50-55.

15) Frankel, “The Deuteronomic Portrayal of Balaam,” 39.

16) 민수기 본문 안에 발람 이야기가 언제 수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로페는 발람 이야기가 민수기 본문에 첨가된 때를 비교적 늦은 시기로 본다. Rofé, *The Book of Balaam*, 12-13, 34-36. 프랑켈은 민수기의 발람 이야기와 신명기의 발람 전승이 주요 용어에 있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민수기에서는 “저주하다”는 말로 קָבַץ(민 22:11; 23:11, 13, 25, 27; 2:10), אָרַר(미 22:6; 23:7; 24:9)가 쓰이나 신명기에서는 ִלְקַח(신 23:4)이 사용되고 있다든지, 발람의 고향을 신명기가 “아람나하라임,” 곧 메소포타미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민수기(MT)가 “그 백성의 자손의 땅”(민 22:5)이나 단순히 “아람”(민 23:7)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발람 전승에 대한 민수기의 판(version)과 신명기 판이 서로 독

하지만 어느 시대에 복합적으로 유포되었던 발람 전승이 후대로 내려갈수록 발람을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흐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발람에 대한 기억은 초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지만, 발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차츰 부정적인 것으로 뒤바뀌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 신앙의 민족주의적 경향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민수기 23:5(“야웨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에 대한 탈무드의 가르침(B. Sanh. 105B)이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두신 것은 말씀이 아니라 낚시 바늘이었다고 해설한 것도 그런 예에 속한다.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르(דָּבַר)를 같은 단어의 다른 뜻인 사물(שֵׂמֶל)로 바꾸어 해석하도록 본문의 뜻을 의도적으로 뒤집어 놓았다. 발람의 입에 하나님께서 낚시 바늘을 두셔서, 발람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였지만, 그렇게 발설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이다.

신명기 본문은 예언을 이스라엘에서만 있는 일로 국한시키고 있다(신 28:9-22). 민수기의 발람 이야기는 발람을 야웨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묘사하지만(민 22:8, 18, 35; 23:3, 12, 16, 26; 24:13), 발람을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고 보는 신명기 23:4에서는 그렇지 않다. 발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작용하셨다는 것이다. 이방인 발람이 이상적인 선지자로 비쳐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민수기 22:5a(MT)의 에레츠 브네 암모(그의 백성의 자손의 땅)를 에레츠 브네 암몬(암손 자손의 땅)으로 수정한 제안은 신명기 23:4와 충돌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발람의 초기 전승이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신앙의 민족주의적 지평에서 재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자적으로 유포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보려고 한다. Frankel, “The Deuteronomic Portrayal of Balaam,” 39.

3. 민수기 22:5a와 여호수아 24:9-10, 발람 전승의 재해석

발람에 대한 신명기적 평가를 보다 더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24:9-10도 들여다보아야 한다. 여호수아 24:9-10은 발람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셨다고 증언하는 또 다른 본문이다. 여호수아 24:9-10은 민수기의 발람 이야기처럼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다만 발람이 발라에게 고용되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다고만 지적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24:9-10의 MT와 LXX 사이에 본문상 이독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수 24:9(MT) וַיִּקְרָא בָלָק בֶּן-בְּעוּר מֶלֶךְ מוֹאָב וַיִּחְלֶם בְּיִשְׂרָאֵל וַיִּשְׁלַח וַיִּקְרָא
בְּבָלָם בֶּן-בְּעוּר לְקַלְבֹּט

수 24:9(LXX) καὶ ἀνέστη Βαλακ ὁ τοῦ Σεπφωρ βασιλεὺς Μωαβ
καὶ παρετάξατο τῷ Ἰσραὴλ καὶ ἀποστείλας ἐκάλεσεν
τὸν Βαλααμ ἀράσασθαι ὑμῖν

수 24:9(표준) 그 때에 모압의 십불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여호수아 24:9는 여호수아 24:10을 전하기 위한 배경적인 설명이다. 모압 왕 발락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בְּבָלָם בֶּן-בְּעוּר) 사람을 보내어 발람을 불렀다고 밝히고 있다. 발람은 발라에게 의해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이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설명에서 MT와 LXX 사이에는 별다른 이독은 없다. LXX는 MT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10에 들어서면 사정이 달라진다. MT의 구문이 어색하다. MT의 뜻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MT와 LXX 서로 다르다. 현대어 성경들(KJV, NAS, RSV, NIV, 개역, 개역개정, 표준)은 대체로 난외주에 어떤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은 채 MT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MT는 정녕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는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는지 명확하게 표기해 놓지 않았다.

수 24:10(MT) לֹא אֲבִיתִי לְשָׁמֵעַ לְבַלְעָם וַיְבָרֶךְךָ בְּרוּךְ אַתְּכֶם וְאֶעֱלֶה אֲתֶכֶם מִיָּדוֹ

수 24:10(KJV) But I would not hearken unto Balaam therefore he blessed you still: so I delivered you out of his hand.

수 24:10(개역개정)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수 24:10(표준)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람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수 24:10(LXX) καὶ οὐκ ἠθέλησεν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ἀπολέσαι σε καὶ εὐλογίαν εὐλόγησεν ὑμᾶς καὶ ἐξείλατο ὑμᾶς ἐκ χειρῶν αὐτῶν καὶ παρέδωκεν αὐτούς

수 24:10(LXX 사역) 그러나 너의 주 하나님은 너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가 너희를 넘치게 축복하였으며, 그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그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MT와 LXX 사이에 있는 이독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LXX가 MT보다 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MT가 당혹스럽게 주어를 바꾸고 있는데 비해(나→그→나), LXX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나

머지 하나는 MT의 “그의 손에서”가 LXX에서는 “그들의 손에서”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 곧 여호수아 24:10(LXX)의 끝에 첨부된 “그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καὶ παρέδωκεν αὐτούς)는 구절은 LXX 사본 내에서만 발견되는 이독이다.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에는 이 구절이 첨가되어 있지만,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drius)에는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다.¹⁷⁾ 즉, 이 문제는 우리들의 논의에서 고려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우리 과제는 MT가 급격하게 주어를 바꿔 사용하는 두 번째 문제이다. MT의 “내가 발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אֲנִי לֹא אָשְׁמַע אֶת דְּבַר בְּלָאָם)는 첫 문장은 “주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לֹא שָׁמַע יְהוָה אֶת דְּבַר בְּלָאָם)는 신명기 23:5[23:6(H)]와 평행한다. “...의 말을 듣지 않았다”(אֲנִי לֹא אָשְׁמַע 또는 אֲנִי לֹא אָשְׁמַע)는 표현은 확실하게 신명기적이다. 그러나 여호수아 24:10(MT)는 그 평행구문인 신명기 23:5[23:6(H)]와는 달리 참 어색하게 한 문장에서 주어가 세 번씩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내가 발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다”→“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가 그것이다. 연속되는 문장의 주어가 “나”에서 “그”로, 다시 “그”에서 “나”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은 “그”가 된다. 우리말 번역

17) LXX 바티칸 사본이 반영하고 있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는 구절은 여호수아 24:8, 11과 여호수아 24:10을 평행시키고자 한 헬라어 서기관들의 의도로 보인다. LXX의 바티칸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이스라엘을 2인칭 복수(너희)로 부르느냐, 1인칭 복수(우리)로 부르느냐는 차이가 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MT를 따라 이스라엘을 2인칭 복수로 부르고 있다. 이 경우 여호수아 24:10의 맥락인 24:8-13에서 화자(話者)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바티칸 사본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1인칭 복수로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고 보고 MT를 수정한 경우이다. Frankel, “The Deuteronomic Portrayal of Balaam,” 33. n. 6.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다”)에 MT에는 없는 “오히려”가 추가된 것은 MT의 구문(강조 구문)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 ‘내가(즉, 하나님) 발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로 이어지는 문맥상의 어색함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라고 보아야 한다.

MT를 따라 본문을 읽을 경우 여호수아 24:10은 민수기 22-24장의 발람 이야기처럼 발람을 긍정적으로-아니면, 적어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다는 고발에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중립적으로-거론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호수아 24:10도 민수기 22-24장처럼 발람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LXX(수 24:10)에는 MT처럼 같은 문장 속에서 급격하게 바뀌는 주어의 변동 같은 현상은 없다. LXX는 MT와는 달리 시종일관 하나님을 3인칭 단수(“그”)로 부르고 있다. 이 점은 별게이트도 마찬가지다. 비록 별게이트가 MT의 “그”를 “나”로 바꾸어 놓았지만, 연속되는 문장 전체의 주어를 “나”로 일관되게 표현해 놓았다. “내가 발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크게 축복하였고,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구출해 내었다”(et ego nolui audire eum sede contrario per illum benedixi vobis et liberavi vos de manu eius)라고 쓰고 있다.¹⁸⁾ 이 점은 시리아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문제도 우리 논의에 소중하다. 여호수아 24:10(MT)의 “그가 너희를 참으로 축복하였다”(בְּרַךְךָ בְּיָמֶיךָ אֱלֹהִים)는 구절을 MT의 앞뒤 맥락에서 수용하면 이스라엘(너희)을 축복한 자는 발람이 된다.

18) 문장의 화자(話者)를 “그”로 보느냐 “나”로 보느냐의 차이는 여호수아 24장에서 말하는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는 판단과 연결되어 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다고 볼 경우 본문은 MT처럼 “그”(하나님)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고 볼 경우 본문은 별게이트처럼 “나”로 옮겨지게 된다.

하나님이(“내가”)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발람이)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이(“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발락이나, 아니면 발람의) 손에서 구출해 내었다고 보게 만든다는 것이다. 『표준』의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다”와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내었다”는 번역은 이런 이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방한다.

LXX처럼 주어의 변동 없이 여호수아 24:10의 이 구절(εὐλογίαν εὐλόγησεν ὑμᾶς)을 읽으면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는 발람이 아니라 야웨 하나님이 된다. LXX는 이 구절을 “그러나 너의 주 하나님은 너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다”(αὐτὸς οὐκ ἠθέλησεν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ἀπολέσαι σε)와 “그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곧 발락과 발람의 손에서!) 건져내었다”(καὶ ἐξείλατο ὑμᾶς ἐκ χειρῶν αὐτῶν) 사이에 두어 MT와 달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발락과 발람의 손에서 구출해 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¹⁹⁾ 발람을 이야기의 대상에서 제쳐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 24:10(LXX)은 한편으로는 MT와 달리 본문을 참으로 매끄럽게 읽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발락의 음모에서 발람을 제외시켜 놓고 있다.

여호수아 24:10의 번역과 해석을 놓고 야기되는 MT와 LXX의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 MT와 별게이트나 시리아 역과의 차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여호수아 24:10의 MT는 우리 눈에는 어색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원래의 본문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까? 그래서 본문의 흐름을 매끄럽게 다듬어 놓은 LXX가 MT를 의도적으로(신학적으로) 수정해 놓았다고 보아야 할까? 즉 LXX는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가 발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신학

19) Frankel, “The Deuteronomic Portrayal of Balaam,” 33-34.

적으로 판단했기에 MT의 어눌함을 수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²⁰⁾ 아니면 거꾸로 MT의 서기관이 민수기의 발람 이야기가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하였다”는 말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고 말하고 있기에 그것을 따라 훗날 “그가 너를 크게 축복하였다”로 변경해 놓았다고 보아야 할까?²¹⁾ 그것도 아니면 LXX가 문장의 주어를 모두 “그”(주 너의 하나님)로 표시하면서도 발람을 의도적으로 생략해 버린 데에는 발람 전승에 대한 신명기 이전의 기억이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해야 할까?²²⁾

여호수아 24:10의 MT는 발람에 대한 초기 전승을 신명기적인 시각에서 수정해 가는 과도기의 단계를 보여준다. MT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압 왕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내셨다고 밝히면서도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고 거론하고 있다. LXX는 MT보다 나중에 이루어진 신학적 개정 작업으로 비쳐진다. 본문의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곧, 발락과 발람의 손에서 구출해 내셨다는 신학적(신명기적) 판단을 거침없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방인 발람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던 자로 묘사하는 발람 이야기(민 22:2-24:25)의 전승을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신앙관에서 변형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은 오로지 이스라엘에서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만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참조, 신 18:9-22).

20) 예를 들어 T. Butler, *Joshua* (Waco: Word Books, 1983), 264를 보라.

21) Frankel, “The Deuteronomic Portrayal of Balaam,” 35.

22) Rofé, *The Book of Balaam*, 46-48.

4. 민수기 22:5a와 데이르 알라 문서(Deir 'Allā Text)

1967년 요르단 계곡 동쪽 텔 데이르 알라(Tell Deir 'Allā)에서 발굴된 데이르 알라 문서(Deir 'Allā Text)는 민수기 22:5a를 해석하는데 꼭 필요한 고고학적 문헌이다.²³⁾ 텔 데이르 알라는 압복 강과 요르단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가까운 트랜스요르단 지역이다. 데이르 알라 문서는 주전 8세기 초 지진으로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방인의 성소 한쪽 구석에서 출토되었다. 발굴 당시 데이르 알라 문서는 회반죽으로 된 벽토 위에 검붉은 잉크로 씌어져 있었다. 이 문서편이 곡선으로 처리된 단편 조각으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신상이 있던 방의 벽에 부착되었던 유물로 보인다. 이렇게 발굴된 단편 조각들을 세심하게 연결해 놓았을 때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 텍스트가 드러났는데, 거기에는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 이야기는 대략 53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수기 22-24장의 발람 이야기와 평행되는 언어학적, 문화적, 종교적 정보를 드러내었다. 이 문서가 발굴될 당시 그 연대는 페르시아 시대로 추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고고학적, 고문서학적 연대 결정 방법에 따라

23) 단편조각으로 발굴된 데이르 알라 문서를 연속적인 텍스트로 복원시킨 사람은 야콥 호프티저(Jacob Hoftizer)와 반 테어 쿠키(G. van der Kooij)이다. J. Hofrizer and G. van der Kooij, *Aramaic Texts from Deir 'Allā* (Leiden: Brill, 1976). 데이르 알라 문서와 발람 이야기에 대해서는 Levine, *Numbers* 21-36, 241-275; M. Kijkstra, "Is Balaam Also Among The Prophets?," *JBL* 114/1 (1995), 43-64; J. Hoftizer and G. van der Kooij, eds., *The Balaam Text from Deir Alla Reevaluated: Proceeding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Held at Leiden, 21-24, August 1989* (Leiden/New York/Copenhagen: Brill, 1991); J. A. Hackett, *The Balaam Text From Deir 'Allā*, *HSM* 31 (Chico: Scholars Press, 1980); P. K. McCarter, Jr. "The Balaam Texts from Deir 'Allā," *BASOR* 239 (1980), 49-60.

그 연대가 주전 8-7세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 주전 9세기까지 올라간다.²⁴⁾ 또 이 문서에 사용된 언어는 아람어와 유사한 북서 셈어의 일종으로 여겨진다.²⁵⁾ 그런 말이 시적인 형태로 씌어져 있으며 글자 모양은 독특한데 암몬어(Ammonite)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²⁶⁾

-
- 24) 테이르 알라 문서의 연대를 놓고 많은 토론이 있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 시대의 것으로 보았다가 H. J. Franken, "Texts from the Persian Period from Tell Deir 'Allā," *VT* 17 (1967), 480-481], 주전 8-7세기 것으로 수정되기도 하고 J. A. Hackett, *The Balaam Text from Deir 'Allā*, 19], 아예 주전 8세기 초나 W. G. Dever, "A Case Study in Biblical Archaeology: The Earthquake of Ca. 760 BCE," *ErIsr* 23 (1992), 27-35], 9세기 후반의 것으로 올려 잡기도 한다(Dijkstra, "Is Balaam among the Prophets?," 46).
- 25) 테이르 알라 문서의 해독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분야가 텍스트의 언어였다. 발굴 당시 이래 사람들은 이 문서의 언어를 아람어로 간주하였다(A. Lemaire, "Les inscriptions sur platre de Deir Alla et leur signification historique et culturelle," Hoftijzer and van der Kooij, eds., *The Balaam Text from Deir Alla Reevaluated*, 33-57; D. Pardee, "Response: The Linguistic Classification of the Deir Alla Text Written on Plaster," Hoftijzer and van der Kooij, eds., *The Balaam Text from Deir Alla Reevaluated*, 100-105). 그러나 언어학적 분석에 기초해 볼 때 이 문서의 언어는 아람어나 가나안어라기보다 고전적 의미에서 텔 테이르 알라 지역에서 통용되던 방언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J. C. Greenfield, "Philological Observations on the Deir 'Allā Inscription," Hoftijzer and van der Kooij, eds., *The Balaam Text from Deir Alla Reevaluated*, 109-120; P. K. McCarter, "The Dialect of the Deir 'Allā Text," Hoftijzer and van der Kooij, eds., *The Balaam Text from Deir 'Allā Reevaluated*, 87-99). 최근에는 테이르 알라 문서의 언어는 아람어나 가나안어의 방계 형태로 보기보다는 북서 셈어 가족에 속하는 독자적인 유형의 언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J. Huehnergard, "Remarks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Northwest Semitic Languages," Hoftijzer and van der Kooij, eds., *The Balaam Text from Deir 'Allā Reevaluated*, 282-293).
- 26) Hackett, *Balaam Text*, 10.

테이르 알라 문서의 첫 번째 부분(1-32행)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이 문서의 재구성, 번역, 해석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 문서가 발람을 브올의 아들로, 밤중에 찾아 온 신들로부터(1-4행) 메시지를 받은 사람으로 보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다. 신들이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심히 못마땅해 하는 것을 발람이 환상 중에 본다(5-12행). 발람이 다음날 일어나 몹시 슬퍼하고, 신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된다(13-32행). 학자들은 발람이 본 환상은 신들이 여신(샤잠)에게 하늘의 문을 걸어 잠가 해가 다시는 뜨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우주가 영원히 암흑에 빠지게 하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²⁷⁾ 이 문서가 민수기 22-24장의 발람 이야기 본문을 해석하는 데 무슨 도움을 주는가? 다음 몇 구절을 살펴보자.²⁸⁾

line 1 *jsry <.> spr l'm <brb'>r*

Warning(s) from the Book of [Ba]laam [the son of Be]or

. š.hzb. 'lbn <.>b '

He was a seer of the gods.

wy'tw. 'lwb. 'lbn. blylb. <xxxxxx>b.

The gods came to him one night [in a vis]ion.

민수기 22:20 וַיָּבֹא אֱלֹהִים אֶל־בִּלְעָם לַיְלָה וַיֹּאמְרוּ לוֹ

27) Hackett, *Balaam Texts*; P. K. McCarter, Jr., “The Balaam Texts from Deir ‘Allā: The First Combination,” *BASOR* 239 (1980), 49-60.

28) 여기에 소개된 테이르 알라 문서의 재구성과 영어 번역은 반 테어 쿠키(G. Van der Kooij)가 재구성하고 디익스트라(Meindert Dijkstra)가 보완한 글에서 인용한다.

line 2 *kms' . 'l,*

according to the command of El

wy'mrw.l<bl'>m. brb' r.kb

and they spoke to Balaam the son of Beor, saying

line 3 *wyqm, bl'm. mn. mbr,*

Balaam got up in the morning

민 22:21 *וַיִּקְמָם בְּלָאָם בֶּרֶךְ*

데이르 알라 문서에서나 성서의 발람 전승에서 발람은 브올의 아들이다. 데이르 알라 문서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데이르 알라 문서는 브올의 아들 발람이 트랜스요르단 지역에서 주전 9-8세기경이나 그 이전부터 존경받던 인물이라는 증거가 된다. 그 이름이 문서에 거론되고 있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발람 전승이 글자로 기록되기 이전 입말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을 것을 감안할 때 구약성서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은 이스라엘 신앙의 울타리 밖에서 이스라엘 전승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르 알라 문서가 발람의 신탁을 다루는 텍스트라는 사실은 첫 행에 나온다. 이 문서의 첫 행“브올의 아들 발람의 책이 주는 경고”(ystry<.>sprl 'm <brb >r)-이 그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첫 행에는 발람의 이름이 파손되어 있다. 이 발람의 이름은 신과 발람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는 4행에 가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ybl'm.br b'r, 오 브올의 아들 발람이여).

데이르 알라 문서에서 발람은 선견자(hzb)이다(1-2행). 환상(hzn)을 보는 사람이다(32행). 점술사(rqbt)이다(11행). 신이 밤에, 환상 중에, 발람에게로 왔다. 주목할 것은 1행의 “신들이 밤의 환상 중에 그에게 왔다”(wy'tw. 'lwb. 'lbn. blylb. <xxxxxx>b.)는 구절이 민수기

22:20(וַיֵּבֶא אֱלֹהִים אֶל־בִּלְעָם לֵילָא וַיֹּאמֶר לוֹ)과 평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데이르 알라 문서에서 발람은 가나안 신전의 최고신의 전령이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신이 보여준 가르침을 주저 없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발람은 신의 말을 선포하는 예언자이다. 발람은 선견자이기도 하고 주술을 행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환상을 기억하며 울며 금식하게 된다(3-4행, 비교, 삼하 12:15-18; 욥 1:13-14; 욘 3:6-10). 그 후 발람은 자기가 본 환상을 선포하기 시작한다(13-14행). 신탁을 선포하는 말의 서두는 자못 시적이다.²⁹⁾ 이야기로부터 시문 스타일로 글말이 바뀌면서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발람의 신탁으로 전환되고 있다.

발람 전승은 성서 안팎에서 두루 유포되고 있었다. 발람은 이스라엘 안팎에서 점성사요, 선견자요, 신탁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데이르 알라 문서가 민수기 22:5a의 “암몬 자손의 땅에 있는 강”이 어디인지를 일러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텔 데이르 알라에서 발굴된 발람 텍스트는 발람이 거주하였다는 강(나할)이 어디인지를 일깨워준다. 데이르 알라 문서가 발굴된 장소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의 산당으로, 발람의 신탁이 선포되었던 종교적 성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⁰⁾ 이곳은 압복 강의 북쪽 약 1.6 km지점으로 암몬 자손의 땅의 경계선을 이루던 곳이었다. 암몬 자손의 땅에 있는 강이란 바로 압복 강이었던 것이다.

5. 맺음말, 발람이 가는 길, 발람이 가야할 길

지금까지 살핀 민수기 22:5a의 본문 비평과 본문 해석은 발람이

29) Dijkstra, “Is Balaam among the Prophets?,” 53.

30) Levine, *Numbers 21-36*, 263; Barré, “The Portrait of Balaam in Numbers 22-24,” 259-260; Layton, “Whence Comes Balaam?,” 47.

누구였는지, 그가 어디 출신인지, 그에 대한 이스라엘 신앙의 기억이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지, 그가 얼마나 폭넓게 칭송되던 점술사였는지를 보여주었다. 발람은 점술사였다. 발람은 암몬 자손의 땅에 있는 강(압복 강)가에 살았다. 신명기적인 발람 전승은 발람을 신학적인 견지에서 부정적으로 대하지만 민수기의 발람 이야기에서 발람은 점술사였지만 하나님이 자기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각되고 있다. 텔 데이르 알라에서 발굴된 발람 텍스트도 발람의 이런 모습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발람의 고향을 유프라테스 강 지역이 아닌 암몬 자손의 땅으로 수정해서 민수기 22:5a를 읽는다면 민수기 22:2-24:25가 다루는 발람의 여행의 의미가 퇴색되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발람이 발락에게 오는 길이 쉬운 걸음이 아닌 것은 길이 멀어서나 험해서가 아니다. 암몬 자손의 땅 압복 강에서 모압까지 가는 길은 본래 발람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다. 발람과 나귀 스토리(민 22:22-35)가 그것을 일깨워준다. 발람이 길을 나서자 발람의 나귀가 길을 막고 서있는 천사를 세 번씩이나 보게 된다. 그 때마다 나귀는 비켜섰고, 그 때마다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였다. 급기야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을 꾸짖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셨다. 발람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된다. 발람이 엎드리자 천사가 발람에게 말한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민 22:32). 이 구절 민수기 22:32는 번역하기 쉽지 않다. 특히 MT의 다음 구절이 문제를 일으킨다.

MT הנה אנכי יצאתי לשון בני־בט הרבה לנגדי...

LXX ...ὅτι οὐκ ἀστέια ἢ ὁδός σου ἐναντίον μου

『개역』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꺾이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
왔더니

『개역개정』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
고 나왔더니

『표준』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우리말(개역)에서 “꺾이므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라트(יָרַע)는
여기에서만 쓰이는 단어(hapax legomenon)이다. LXX는 이 말을 “네
길이 내 앞에서 아름답지 않다”(ὅτι οὐκ ἀστεία ἡ ὁδός σου
ἐναντίον μου)고 옮긴다. 별게이트는 LXX의 “아름답지 않다”(οὐκ
ἀστεία)를 “사악하다”(perverse)로 표현하였다. 밀그롬(J. Milgrom)은
이 단어를 역겨운(obnoxious)이라고 표현하지만, 레빈(B. A. Levine)은
아예 구절 전체를 문맥에 맞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나를 괴롭히
고 있다”(for the mission was pressing upon me)로 옮긴다.³¹⁾ BHS
의 비평적 각주는 LXX, 사마리아 오경, 별게이트를 따라 이 단어를
“네 길이 악하니”(עַל, your way is evil)로 읽으라고 제안하고 있다
(참조, 민 22:34).

발람이 발락에게 오는 길은-발람이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가서는
안 될 길이다. 암몬 자손의 땅 압복 강변에서 모압 경계까지 오는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은 그 길이 발락의 요청으로 오는
길이기 때문이다. 거리가 멀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지리적 환경이
거칠어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었
기에 사악하고 저주스러운 길이 된다. 발람과 그의 나귀 이야기(민
22:22-35)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길”

31) Wevers, *Notes on the Greek Text of Numbers*, 378; Milgrom, *Numbers*,
192; Levine, *Numbers*, 21-36, 159. 레빈은 MT의 하레렉(חֲרֵלֶק)을 “길”보다
는 “여정”(voyage), “미션”(mission)으로 읽는다.

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삽화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러 가는 길을 발람이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민수기 22:5a의 본문 비평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낳는다. “브올의 아들 발람, 그는 점술사로 암몬 자손의 땅 압복 강변에 살고 있었다.”

<주요어>

발람, 발락, 브돌, 암몬 자손, 압복강, 본문 비평, 이독(Variants), 데 이르 알라 문서

<Key Words>

Balaam, Balak, Pethor, the sons of Ammon, Jabbok River, Text Criticism, Variants. Deir ‘Allā Inscription.

참고문헌

-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 Ashley, T. R., *The Book of Number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3.
- Barré, M. L., “The Portrait of Balaam in Numbers 22-24,” *Interpretation* 51/3 (1997), 254-266.
- Buter, T., *Joshua*, Waco: Word Books, 1983.
- Coats, G. W., “Balaam: Sinner or Saint?,” *Saga, Legend, Tale, Novella, Fable: Narrative Forms in Old Testament Literature*, JSOTSup 35, Sheffield: University of Sheffield, 1985, 56-62.
- Dever, W. G., “A Case Study in Biblical Archaeology: The Earthquake of Ca. 760 BCE,” *Eretz Israel* 23 (1992), 27-35.
- Frankel, D., “The Deuteronomic Portrayal of Balaam,” *VT* 46/1 (1996), 30-42.
- Franken, H. J., “Texts from the Persian Period from Deir ‘Allā,” *VT* 17 (1967), 480-481.
- Gray, G. B., *Numbers*, ICC, Edinburgh: T.&T. Clark, 1903.
- Greene, J. T., *Balaam and His Interpreters: A Hermeneutical History of the Balaam Traditions*, Brown Judaic Studies 244, Atlanta: Scholars, 1992.
- Hackett, J. A., “Balaam,” *Anchor Bible Dictionary*, I, New York: Doubleday, 1992, 560-572.
- Hackett, J. A., *The Balaam Text From Deir ‘Allā*, HSM 31, Chico: Scholars Press, 1980.
- Hoftijzer, J. and van der Kooij, G. eds., *Aramaic Texts from Deir ‘Allā*, Leiden: Brill, 1976.
- Hoftijzer, J. and van der Kooij, G. eds., *The Balaam Text from Deir ‘Allā Reevaluated. Proceeding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Held at Leiden. 21-24 August 1989*, Leiden/New York/Copenhagen: Brill, 1991.
- Kaiser, W. C. Jr., “Balaam Son of Beor in Light of Deir ‘Allā and Scripture:

- Saint or Soothsayer?," J. E. Coleson and V. H. Matthews, eds.,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Studies in Honor of Dwight S. Young*, Winoa Lake: Eisenbrauns, 1996, 95-106.
- Kijkstra, M., "Is Balaam Also Among The Prophets?," *JBL* 114/1 (1995), 43-64.
- Lapsley, J., "'Am I Able to Say Just Anything?': Learning Faithful Exegesis From Balaam," *Interpretation* 60/1 (2006), 22-31.
- Layton, S. C., "Whence Comes Balaam? Numbers 22:5 Revisited," *Biblica* 73 (1992), 32-61.
- Levine, B. A., *Numbers 21-3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4A, New York: Doubleday, 2000.
- Lutzky, H., "Ambivalence Toward Balaam," *VT* 49/3 (1999), 421-425.
- Malamat, A., "The Arameans," D. J. Wiseman, ed., *Peoples of Old Testament Times*, Oxford: Clarendon Press, 1973.
- McCarter, P. K. Jr., "The Balaam Texts from Deir 'Allā: The First Combination," *BAJOR* 239 (1908), 49-60.
- Milgrom, J., *Number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New York: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 Moore, M. S., *The Balaam Traditions: Their Character and Development*, SBLDS 113, Atlanta: Scholars Press, 1992.
- Olson, D. T., *Numbers*, IBC,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 Rofé, A., *The Book of Balaam (Numbers 22:2-24:25): A Study in Methods of Criticism and the History of Biblical Literature and Religion (in Hebrew)*. *Jerusalem Biblical Studies*, I, Tel Aviv: Simor Ltd, 1979.
- Sakenfeld, K. D., *Journeying with God: A Commentary on the Book of Numbers*, ITC, Grand Rapids: Eerdmans, 1995.
- Wevers, J. W., *LXX: Notes on the Greek Text of Numbers*, Atlanta: Scholars Press, 1998.

<초록>

본문 비평 없이 성서 해석이 가능한가?

-민수기 22:5a의 본문 비평과 본문 해석-

왕대일

(감신대 교수, 구약학)

“그 때에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브돌에 있었다”(민 22:5a, 표준)는 구절은 민수기의 발람 이야기(민 22:2-24:25)에서 소중하다. 이 구절의 본문 비평은 MT의 에레츠 브네 암몬(ארץ בני-עמון)를 사마리아 오경, 페쉬타, 별게이트를 따라 에레츠 브네 암몬(ארץ בני עמון, 암몬 자손의 땅)으로 고쳐 읽으라고 제안한다. 이 경우 강은 트랜스요르단 지역의 강이 되고, 발람이 살던 고장으로 번역되는 브돌(페토라, פתורה)은 유프라테스 강 북쪽 피트루(Pitru)와 연관된 지명이 아니라 히브리어 포테르(פותר)로 발람의 사회적 역할을 지칭하는 호칭(꿈을 해몽하는 사람, 점술사)이 된다(창 40:8; 41:13; 수 13:22). 이런 본문 수정은 발람이 자기 고향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모압까지 왔다는 여행거리(민 22:22-35)를 무척 짧게 해주는 이점을 지닌다. 이방인 점술사였지만 야웨 하나님께 예언자로 쓰임 받았다는 민수기 22-24장의 발람은 신명기 23:4; 여호수아 24:9-10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신앙의 민족 주의적 시각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여호수아 24:9-10(LXX)은 발람 전승이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셨다는 신명기 전승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민수기의 발람 전승과 평행하는 데이크

알라 문서는 발람이 트랜스요르단 지역의 압복 강변에 살았음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한다. 즉, 민수기 22:5a의 본문 비평과 본문 해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낳는다. “브올의 아들 발람, 그는 점술사로 암몬 자손의 땅 압복 강변에 살고 있었다.”

<Abstract>

Exegetical Reflections on Numbers 22:5a: The Text-critical study and the Biblical Hermeneutics

Prof. T. I. Wang

(Methodist Theological Univ.)

This paper is to examine Num. 22:5a, “Balaam, the son of Beor, lives at Pethor, which is near the River in the land of the sons of his people,” from the text-critical standpoint. The verse ארץ בני-עמו in MT, traditionally translated as “the land of the sons of his people,” is to be read on the basis of Hebrew mss., Sam. Pent., Pesh., and Vulg., as ארץ בני עמון, “the land of the sons of Ammon.” Thus the River in the verse could mean some flow or wadi running through the Transjordan and the place name פתורה, frequently identified with a site on N. Euphrates, is to be understood as a title

referring to dream interpreter, diviner or soothsayer(Gen. 40:8; 41:13; Josh. 13:22). This interpretation makes us see that Balaam's journey to Moab from his homeland on a donkey would be shorter. Balaam, a pagan diviner, who is seen to be a believer and a prophet of Yahweh in Num. 22-24, is known in negative terms by Deut. 23:4 and Josh. 24:9-10 for theological reasons. LXX of Josh. 24:9-10 reflects a process of the growth of deuteronomic tradition that God altered the curse uttered by Balaam into blessing. Deir 'Allā inscription gives an evidence for recognizing the river where Balaam is said to live. It was the cultic site which was about a mile north of the wadi Jabbok on the boundaries of Ammonite land. Num. 22:5a might then be translated/interpreted: "Balaam, the son of Beor, was a diviner, who lived by the river Jabbok in the land of the Ammonites."